

사회

광주 '산성 수돗물' 배상액 1인 평균 10만6500원

피해시민들 "이게 뭐야"

지난 5월 발생한 광주 용연정수장 '산성 수돗물' 사고와 관련 손해배상액이 물건 피해의 경우 1건당 평균 30만원, 신체 피해는 1건당 10만6500여원으로 결정됐다.

광주시는 피해시민이 재심을 요구할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11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용연정수장 수질사고 배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질사고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381건에 대한 개별 배상액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시민단체, 교수, 의사, 시의원 등으로 꾸려졌으며 모두 2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지난 4일 배상액 2억7000여만원을 최종 결정할 바 있다.

아파트 저수조 피해에 따른 청소비 배상이 245건에 2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어류 폐사·정수기 필터 교체 등 물건 피해 배상이 90건에 2700여만원, 신체에 대한 배상이 46건에 490만원이었다.

신체 피해중 최고액인 58만원의 배상이 결정된 시민은 수돗물로 인해 장염, 복통때문에 장기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 금액 통지와 함께 이의가 있는 시민들을 위해 재심 신청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통지서를 받은 일부 피해자들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조모(41·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는 "고등학생 자녀를 포함한 가족 4명이 수돗물을 마시고 배탈과 설사로 고생을 했는데, 실비만 책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아 민사 소송을

제기하든지, 개인으로라도 꼭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모(69·광주시 남구 방림동)씨는 "광주시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말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사과 문구는 고사하고 '배상금 받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광주시는 산성 수돗물에 대한 인체역학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위자료의 범위도 특정 짓기 힘들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5월12일 오전 8시에 용연정수사업소의 약품투입 밸브가 열리면서 강산성 응집제가 과다투입돼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한 산성 수돗물이 5시간 동안 시민들에게 공급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빈그릇 운동' 선포식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빈그릇 운동' 선포식이 11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광주시 그린네트워크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및 기관장과 어린이들이 빈그릇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진수 jeans@kwangju.co.kr

기초수급자 선정 대가 성상납 받은 공무원

법원, 광주 모구청 6급 징역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금품과 함께 성 상납까지 받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홍진호 부장판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성 상납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광주 모구청 공무원 김모(56·6급)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6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게 뇌물을 제공

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정모(여·46)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청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08년 3월12일 정씨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원과 6만원 상당의 참치선물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정씨의 주소를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관할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도록 하고 전세·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 재산 내역도 감추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를 2종에서 1종으로 바꾸도록 돕기도 했다. 김씨는 이와 함께 정씨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지난 2009년 4월 정씨로부터 성 상납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과 검찰은 성행위까지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돕고 받은 대가로 판단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외제차 몰며 사고 위장 수억 보험금 타내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교통사고를 위장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염모(2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염씨의 형(30)을 수배했다. 또 공범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 형제 등은 지난 2010년 4월께 북구 운암동 운암고가 위 차선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차량을 발견한 뒤 추돌,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보험사가 차주에게 직접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임모(52)씨에게 4000만원을 건네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나원침 (8607) 김장두



60대 女 주폭 영장

광주북부경찰청은 11일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식당 업주와 손님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박모(여·66)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북구 김모(여·35)씨의 식당에서 돌병을 던지고 음식에 소금을 넣는 등 5차례에 걸쳐 383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영장을 발해한 혐의다.

경찰은 박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광주 북구 일대 상인 27명의 탄원서가 접수됨에 따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무류함 달래려 무작위 음란전화

○군인대를 앞두고 무류함을 달래기 위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음란한 대화를 건넨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11일 광주서부경찰청에 따르면 김모(20·부산시 진주)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2시50분께 광주에 사는 A(여·21)씨의 휴대전화로 두차례 전화를 걸어 "가슴이 커보이더라" 등의 음란한 대화를 시도했다는 것.

○김씨는 "호기심에 휴대전화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아한 농담을 했다"고 진술.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군사반란 저항 정당성 증명 다행"

광주민주화운동 참여 32년만에 무죄 박병국씨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찬탈한 권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이 증명돼 정말 다행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기동타격대로 참여한 혐의(내란부화수행)로 기소돼 198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청구해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



은 박병국(51·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사진)씨는 "이제 텅텅하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무안 출생으로 1980년 19살 미

성년 구두 제재 가능공이었던 박씨는 5·18 당시 전남도청 시위대에 가담해 소총과 실탄을 지급받고 광주 시내를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 일로 그해 군사법원에서 징역 장기 1년6달,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5·18 이후 생계를 위해 서울에서 살면서도 그는 항상 5·18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박씨는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했지만 민중스럽지 못했다"며 "이제야 명예도 회복하고 '명예'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선거운동원인 4명도 정해진 보수보다 5만원 가량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돼 기소됐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이 4·11총선 당시 배 의원 선거운동원이 나주시역 조직폭력배 출신이 포함된 불법 사조직을 동원,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적발해 선거운동원 이모(43)씨 등을 송치하면서 검찰이 이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배기운 선거사무실 기획실장 구속

광주지검 공안부(송규종 부장검사)는 11일 미등록 사무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의 선거사무실 기획실장 정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씨로부터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모(여·41)

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선거사무실 회계 책임자를 쫓고 있다.

정씨는 4·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말부터 10여 일간 전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박씨 등 자원봉사자 9명에게 1인당 90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미등록 자원봉사자 9명 외에 등록

실내골프연습장

SKY 골프 Club 연습장

최첨단 스윙분석기·타석스크린 전타석 설치!! 방향, 비거리, 스윙동영상을 동시에!!



새벽반(6:00) 환영
● 드라이빙레인지 모드
● 스윙분석
● 훈련모드(퍼팅, 어프로치 연습)
● PAR3 게임모드
● 스트로크 게임모드
연습장 이용시간
평일 06:00 ~ 23:00
토요일 10:00 ~ 22:00
일요일·공휴일 12:00 ~ 20:00
※플래주, 넷째주 일요일 쉽니다.

SKY 골프 Club 연습장 Tel. 372-3900 H.P. 010-3635-3784 서구 치평동 1187-2 월계수타운 지하1층

전남 영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물건번호 1)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법원최초 입찰가 : 9,518,275,000원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외 1필지 (전남방직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물건종별 : 의료시설
■토지면적 : 9,517㎡
■건물면적 : 7,305.36㎡(지하 1층, 지상 3층)

Table with columns: 구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과. Rows show 1st, 2nd, and 3rd bids with dates and amounts.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